

건강보장 상품 등 수익전략 강화… 신계약 CSM 1조 초읽기

(보험계약마진)



신계약 CSM 연간목표의 85% 확보
상반기 총 6019억, 전년비 82% ↑

보험손익 42% ↓, 투자손익 적자
상반기 순이익 351억, 77% 감소
계약유지·비용관리 과제로 남아

NH농협생명이 올해 신계약 보험계약 마진(CSM) 1조원 목표에 다가서는 등 미래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연간 목표의 85%를 확보했지만, 상반기에는 보험·투자손익 악화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계약 성장과 함께 보유계약의 수익 실현을 뒷받침할 계약 유지와 비용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올해 신계약 CSM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강보장 상품을 확대하고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강화하면서 9월까지 약 8500억원의 신계약 CSM을 확보했다.

◆ 보장성 확대로 미래이익 축적

신계약 확대는 상반기부터 뚜렷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60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2.2% 증가했다. 새로 체결



NH농협생명 사옥.

/NH농협생명

한 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의 기반이 커진 셈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미래 이익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나눠서 수익으로 반영된다.

NH농협생명은 상반기에 보유 CSM 중 2035억원을 상각해 수익으로 인식했다. 보험손익은 이 수익과 함께 실제 보험금·사업비와 예상치의 차이, 손실계약비용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해 결정된다.

NH농협생명은 경영공시에서 상품판

매 전에 보험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며 “수익성 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유계약에서는 연금·저축 비중이 높다. 6월 말 경영공시에서 원수수재계약의 ‘잔여보장요소’를 합산하면 연금·저축이 27조3401억원으로 66.3%를 차지했다. 잔여보장요소는 앞으로 제공할 보험서비스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최근 보장성 상품을 강화하는 판매 전략과 누적된 보유 계약의 구성을 함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계약관리에서는 상반기 25회차 계약유지율이 88.07%로 전년 동기보다 7.30%포인트(p) 높아졌다. 다만 61회차는 하락해 회차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계약에서 예상한 수익을 실현하려면 계약이 지속되고 보험금·사업비 등 비용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상반기 보험·투자손익 악화

상반기 손익에서는 비용 증가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공시에 첨부된 일반회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반기 순이익은 3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3%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1163억원으로 41.9% 줄었고, 투자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635억원 흑자에서 올해 약 43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보험수익이 증가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184억원 늘어나 본업 이익을 압박했다. NH농협생명은 7월 상반기 실적 발표 당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적용에 따른 손실계약비용 증가와 사업비 가정 변경 등이 보험손익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규담보와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상품의 손해율 가정을 강화하고,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장래 보험금과 사업비를 추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 것.

투자 부문에서는 보험부채와 관련한 보험금융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약 395억원 늘어난 7801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수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보험금융비용 등 투자비용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최종 투자손익은 악화했다.

자본비용에는 보험부채 평가액 감소의 효과가 반영됐다. 6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전 217.41%, 후 396.39%로 전분기보다 높아졌으나 지난해 말에는 못 미쳤다. NH농협생명은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의 평가금액이 자산보다 더 크게 줄면서 순자산이 늘었다고 공시했다.

신계약 CSM 확대는 NH농협생명의 미래 수익 기반을 키운 성과다. 이를 이익 회복으로 연결하려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보험금·사업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는 지난 7월 ‘신계약 CSM 1조 추진 선포식’에서 “올해를 미래 수익 중심의 내실 경영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아 신계약 CSM 1조원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출금리 편법 인상, 민생과 직결… 감독지침 마련·대응”

금융위·금감원 2026 국감

“퇴임 임원, 자리 옮겨 막대한 보수
‘옥상옥 지배구조’ 제도개선 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편법적 금리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출 금리의 편법적 인상은) 은행 건전성과 별개로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은행업권 감독 시 우선도가 높은 감독 항목으로 지정해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편법적 금리 인상을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시 서금원 출연금을 비롯한 법정금리의 반영이 금지됐지만,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춰 고객 부담을 늘리는 ‘편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높이고 우대금리도 축소하면서 은행권의 이익을 늘려가고 있는데, 정작 은행장들은 금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라며 “은행법이 개정되고 해당 방안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제서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실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편법적 금리 인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당초 기준 금리 변동 시 금리의 자동조정을 전제로

설계됐던 만큼, 대출이자 산정 시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편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은행권의 편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옥상옥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금융지주사 임원들이 퇴임 이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산하연구소 임원이나 자문 등으로 부임하면서 막대한 보수를 받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각 금융지주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주 임원에서 퇴임하고 계열사나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인원이 수도없이 많다”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상 법률상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보수까지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영진이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되는 ‘이너서클’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부 금융회사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수익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퇴임임원에 대한 예우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

서 나가는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에 ‘옥상옥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문·자문 제도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그림자 임원 관련 내용을 협의·보완하고 있으며, 실무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의무 설치를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해커들의 공격 통로가 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19개 은행 중 9곳이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보안 프로그램 및 관련 서버에서 수십 건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라며 “보안 프로그램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해킹 루트를 늘려주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신촌역 인근에 49층, 383가구 조성

서울시, 마포4구역 9지구 계획 변경

서울 신촌역 인근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최고 49층, 38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중심에서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신촌역 환경개선과 청소년 복지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관분과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106-9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촌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서울시는 훼손된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시설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용적률은 1120%, 건축물 높이는 170m 이하로 조정된다.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83가구가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택 평형 구성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됐지만, 이번 변경안에는 가족 단위 주거 수요를 고려해 전용 59㎡와 84㎡ 이상 주택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촌역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여도 이뤄진다. 사업을 통해 약 73억원을 공공기여해 신촌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물 지상 2~3층에는 연면적 약 1662㎡ 규모의 마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삼성카드 ‘연회비 100만원’ 메리어트 카드

플래티넘 등급 최단기간 획득

“메리어트 카드 중에서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메리어트 플래티넘 티어(등급)를 최단시간에 가장 낮은 이용 금액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김대순 삼성카드 부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언헤이븐에서 ‘메리어트 본보이 더 프레스티지 삼성카드’ 출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신규카드

는 삼성카드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프리미엄 고객을 타겟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연회비는 100만원이다.

카드 핵심은 메리어트 플래티넘 등급으로의 빠른 승격과 발급 시 제공되는 숙박권의 폭넓은 활용이다.

김숙자 삼성카드 마케팅 담당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래티넘 등급을 보다 쉽고 빠르게 획득하

는 것과 두 번째는 발급 시 제공되는 숙박권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이번 상품에 집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카드 발급과 동시에 메리어트 본보이 골드 엘리트 등급이 부여된다. 발급 첫해 누적 이용 금액 1200만원 이상, 2차 연도 이후 전년도 이용 금액 2400만원 이상 이용 시 플래티넘 엘리트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김 부사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려면 연간 약 4500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반면, 저하는 기

준 금액을 1년 차 1200만원, 2년 차 2400만원으로 낮춰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플래티넘 엘리트 회원에게는 50% 메리어트 보너스 포인트 적립, 2인 조식 서비스, 상위 객실 업그레이드, 라운지 이용, 오후 4시 레이트 체크아웃 등 메리어트 본보이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혜택이 부여된다.

삼성카드는 출시 첫해 9000매, 출시 3년 내 2만매 이상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